

韓, EV3 등 소형 전기차 대거 공개... 글로벌 영업 드라이브

2024 파리 모터쇼

기아 EV 출시 앞두고 매력 소개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등 기술 공개
르노그룹 콘셉트카 '엠블럼' 선보

세계 5대 모터쇼 중 하나로 꼽히는 파리모터쇼가 막을 올린다.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세계 각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출사표를 던진 파리모터쇼는 14일 막을 올리고 20일까지 닷새간 대장정에 돌입한다. 올해로 126주년을 맞은 파리모터쇼에서 르노와 푸조, 폭스바겐그룹, 현대차그룹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미래 기술을 대거 선보인다. 특히 국내 완성차 가운데 기아는 유럽 출시를 앞두고 있는 소형 전기차 EV3를 공개하는 등 현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그룹은 자신들의 안방무대인 파리모터쇼에서 르노와 다치아, 알핀, 모빌라이즈 등 르노그룹 산하 브랜드들이 월드 프리미어 7종, 콘셉트카 2종을 비롯한 최신 차량을 공개하고 전기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핵심 모델은 르노 4E-테크 일렉



EV3.



기아 르노그룹의 새로운 엠블럼 콘셉트카.

르노그룹

트릭이다. 르노4 E-테크 일렉트릭은 1960년대 생산된 경형 해치백 르노4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순수 전기차(BEV)다.

또 지속가능성과 탈탄소화 측면에서 브랜드의 미래를 구현해 낸 새로운 콘셉트카 '엠블럼', 프랑스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오라토와 협업한 '르노 17 레스토모드'도 공개한다. 또 세닉 E-테크 일렉트릭과 트윙고 프로토타입, 르노 5 E-테크 일렉트릭 등 르노 브랜드의 순수 전기차와 함께 심비오즈, 라팔 등 르노 브랜드를 대표하는 E-테크 풀하이브리드 모델도 함께 선보인다. 르노 그룹 내 스포츠카 브랜드 알핀은 이

번 파리 모터쇼에서 브랜드 최초의 전기 스포츠 패스트백 'A930'의 콘셉트카 'A390_β (베타)'를 공개한다. 내년 출시를 앞둔 A390은 울여름 판매를 개시한 핫해치 모델 A290과 함께 알핀의 순수 전기차 라인 '드림 개러지'에 합류할 예정이다.

르노 그룹과 마찬가지로 스텔란티스도 자국 모터쇼에 집중한다. 우선 기존 408모델을 베이스로 제작된 푸조의 기대작 E-408이 선보인다. 친환경차로 제작되는 E-408은 210마력의 모터를 장착하면서 최대 주행거리가 452km 수준에 달한다. 신형 푸조 e-3008 및 e-5008 SUV 플레인지 등 다양한 친환경 모델도 함께

선보인다. 시트로엥도 C4와 C4X 월드 프리미어 공개를 앞두고 있다.

6년만에 참가한 기아는 EV3를 공개할 예정이다. 엔트리급 전기차를 표방하는 EV3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기아가 지난 2021년 출시한 중형 SUV 'EV6'와 2023년 대형 SUV 'EV9'를 출시한 데 이어 기아가 내놓는 세 번째 전용 전기차다.

EV3는 올 연말 유럽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이미 2025년 유럽 올해의 차 1차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기아는 출시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파리모터쇼에서 EV3의 매력을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의 친환경 핵심부품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는 파리모터쇼에 첫 참가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상대로 기술 공개와 영업 활동을 전개한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참가를 계기로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인 유럽에서 신규 고객을 추가로 확보해 역대 최대 해외 수주 실적을 낸 지난해 기록(12조2000억 원)에 도전한다. 현대모비스는 전동화와 자율주행,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램프 등 4개 분야의 기술을 공개한다.

독일 완성차 업체들의 참가도 눈길을 끈다. BMW그룹은 향후 미래차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비전 노이어 클라쎄' 기반의 전기차를 공개할 예정이다. 차명은 iX3인 것으로 전해진다. MINI는 JCW(존 쿠퍼 워크스) 전기차 모델을 새롭게 내놓는다.

폭스바겐 그룹 산하 아우디는 뉴 A5와 함께 RS3, A6 e-트론, Q5를 선보일 계획이다. 폭스바겐은 7인승 SUV 차량인 타이룬을 공개한다.

중국산 자동차를 대표하는 BYD(비야디)는 대형 전기 SUV 양왕 U8을 프랑스 현지에서 처음 선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항공업계, 겨울 손님맞이 분주... 동남아 등 취항·증편

대한항공 발리 노선 매일 2회 운항
제주항공 코타키나발루 신규 취항
진에어 클락·비엔티안 노선 운항
에어서울 항공권 할인 등 혜택 강화

항공업계가 겨울철 계절적 수요 증가에 맞춰 따뜻한 동남아 지역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상기후 현상으로 피서객뿐만 아니라 피한객도 늘어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전통적 성수기인 겨울방학 시즌에 따뜻한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동남아 지역 신규 취항 및 기존 노선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라니냐 발달로 올해 초겨울에는 일본 동쪽 지역으로 저

기압성 순환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차고 건조한 기류가 유입돼, 11월~12월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돼 동남아 노선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다.

저비용항공(LCC)업계 1위 제주항공은 동계 운항 스케줄에서 동남아 노선을 대폭 늘렸다. 인천~바탐(10월16일)·인천~발리(10월27일) 노선에 신규 취항할 뿐만 아니라 부산~코타키나발루 노선도 취항한다.

또한 지역 항공편에서도 ▲부산~클락(주 4회) ▲부산~방콕(주 4회) ▲부산~코타키나발루(주 2회) ▲부산~싱가포르(주 7회) 운항에 나설 방침이다.

진에어도 동계 시즌을 맞아 계절적 수요가 집중되는 동남아 노선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클락 ▲인천~비엔티안 노선을 10월27일부터 주 7회 일정

으로 재운항하며, ▲인천~나트랑 노선을 매일 2회씩 운항해 증편한다. 또한 ▲인천~푸꾸옥 노선은 중대형 항공기 B77-200ER을 투입해 공급석을 늘리기로 했다.

에어부산은 10월30일부터 동남아 대표 여행지인 발리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 부산~발리 노선은 주 4회 일정으로 운영된다. 11월13일부터는 부산~홍콩 노선에 재취항하는 등 인기 노선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장거리 전문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도 동남아 하늘길 확대에 나선다. 에어프레미아는 보잉 787-9 항공기 4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인데, 기단 확장에 맞춰 동남아 인기 여행지인 다낭·홍콩 노선에 취항할 방침이다.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도 동계 스케줄에서 동남아 노선 공급을 늘

리기로 했다. 나트랑, 푸꾸옥 노선은 매일 1회 운항했으나 2회로 늘리며, 발리 노선은 주 11회 운항에서 매일 2회 운항으로 늘린다.

에어서울은 보유기단이 적은 관계로 증편 대신 ▲항공권 할인 ▲제휴 혜택 ▲비교적 넓은 좌석(33인치) 등을 앞세워 이용객 확보에 나선다. 동남아 인기 여행지인 보홀·다낭·나트랑 노선 항공권을 할인 판매하며, 제휴 혜택으로는 ▲여행자 보험 할인(최대 30%) ▲보홀 액티비티 프로그램 할인(최대 17%) 등을 제공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겨울방학과 여름방학기간은 항공업계 전통적인 성수기"라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 인기 동남아 노선을 중심으로 증편 및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박대성 기자 iunms@



'더 2025 카니발' 전측면.

/기아

기아 '더 2025 카니발' 출시

안전·편의사양 확대... 상품성 개선

대한민국 대표 패밀리카인 기아카니발이 연식 변경을 통해 상품성을 개선했다. 가격은 연식변경을 거치면서 소폭 상승했다.

기아는 국내 대표 대형 RV 카니발의 연식 변경 모델인 '더 2025 카니발'을 15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더 2025 카니발은 고객이 선호하는 안전·편의사양을 확대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더 2025 카니발의 전 트림에 ▲조향제어 방식을 보강해 기존 대비 차로 유지 보조(LFA) 2 ▲정전식 센서를 활용한 스티어링 휠 그림 감지 ▲새로운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 등 신규 사양을 기본 적용해 상품성을 더욱 향상시켰다.

또 기존에 선택 사양으로 운영되던 기아 디지털 키2, 터치타입 아웃사이드 도어핸들 등 편의사양을 시그니처 트림부터 기본화해 고객 만족도를 한층 높였다. 아울러 그레비티 트림에서 스노우 화이트 펄 외장 색상을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며, 노블레스 트림에는 코튼 베이지와 네이비 그레이 내장 색상을 추가해 고객 선택권을 넓혔다.

/양성운 기자

에스틴마틴, 뱅퀴시 론칭... "한국에서의 활동 확대"

서울 전시장 오픈 기념 행사

영국 스포츠카 브랜드 에스틴마틴이 V12 엔진의 걸작 뱅퀴시를 국내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럭셔리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수원에 이어 서울에도 공식 전시장을 오픈하는 등 국내 시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에스틴마틴은 지난 11일부터 4일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개최된 뱅퀴시 국내 론칭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초 오픈한 에스

틴마틴 수원에 이어 두 번째 전시장인 에스틴마틴 서울의 오픈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두 전시장은 모두 한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딜러사인 브리타니아오토가 운영하며 에스틴마틴의 국내 공식 수입사로서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 럭셔리 자동차 시장에서 에스틴마틴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에스틴마틴은 이번 행사에서 신형 밴티지와 업그레이드된 DBX707도 전시했다. 이 외에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는 에스틴마틴 아랍코포

몰러원(F1)팀의 AMR24 첼린저와 제임스 본드 영화에 등장한 아이코닉한 실버 버치 색상의 DB5를 비롯해 에스틴마틴의 111년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차량들의 특별 전시가 운영됐다.

마르코 마티아치 에스틴마틴 글로벌 브랜드 및 사업총괄은 "올해는 에스틴마틴이 한국 시장 진출 10주년을 맞는 해로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기존 에스틴마틴 고객과 럭셔리카를 사랑하는 고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는 다짐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기"라며 "뱅퀴시를 포함한 새로운 모델들을



에스틴마틴 뱅퀴시.

선보이는 지금 시기가 한국에서의 활동을 확대하기에 매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에스틴마틴 서울은 대치동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 2층 504.82m2(약 152.7평) 규모로 최대 7대의 모델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다.

/양성운 기자